

스포츠원 **SPORTS1**

2022 05 | VOL.71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MONTHLY MAGAZINE



CONTENTS



과녁의 중심, '골드'에 닿는 화살의 속도 **240km/h**

두 손가락으로 양궁의 줄을 바짝 당겨 과녁을 향해 쏜
화살의 속도는 최대 240km/h.
하지만 양궁에서는 속도보다 중요한 게 있다.
바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계산해,
정확하게 과녁의 중심부로 화살을 날리는 것.
그 때문에 선수들은 정신을 집중해 바람을 읽어야 하고,
자신에게 맞는 화살의 길이와 강도를 찾아야 한다.

SPORTS 1

2022 05 | VOL.71

발행인 이기흥 회장
편집인 조용만 사무총장
발행처 대한체육회 홍보실
발행일 2022년 05월 19일
주소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전화 02.2144.8114
팩스 02.420.4233
홈페이지 www.sports.or.kr
등록번호 송파, 라 00052
기획·디자인 디자인메카 02.516.1910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발행되고 있습니다.



KSOC & SPECIAL

- 04 포토에세이
- 08 THEME TOPIC ①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12 THEME TOPIC ②
학생선수의 꿈의 무대, '전국소년체육대회'
- 14 THEME REPORT ①
60번째 국정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춤추는 스포츠 복지 실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스포츠의 나라
- 18 THEME REPORT ②
모든 학생이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대 열리길!



KSOC & SPORTS

- 20 ZOOM IN**
100년의 역사,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 22 HERO OF GENERATION**
즐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다
양궁 국가대표 김제덕
- 26 SPONOMICS**
기업과 선수 모두 Win-Win!
스포츠마케팅의 세계!
- 28 TECH INSIGHT**
리베로? 0.4초? 적용기준이 다른 규칙?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배구 이야기
- 32 GLOBAL SPORTS PRISM**
지구촌, 태권도에 반하다
- 34 위드 스포츠7330**
골프와 함께 '엔조이 라이프(Enjoy Life)'
35골프
- 38 학교야 체육하자!**
학교체육 중점 프로그램을 통해
더 건강해진 학교, 더 활기찬 학생들!
배명고등학교



KSOC & TREND

- 42 NEW NORMAL & SPORTS**
Let's play 'IT'
MZ세대의 건강관리
- 44 SNS 라이브**
우리는 모두, 봄햇살처럼 눈부셨습니다!
국제대회, 국내대회
- 46 가볍게 스포츠**
새로운 FIFA 랭킹 산정 방법,
알고 있나요?
- 48 가볍게 여행**
고즈넉한 '낭만 산책길'을 걷다
- 50 KSOC 모의고사**
도전! 나도 Sporter
- 52 2022년 스포츠주간 이벤트 당첨자 안내**
- 54 KSOC NEWS**

소소하고 평범한 행복, 가족을 말하다

가족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너무 소소해서, 너무 평범해서
우리는 그 소중한 관계를 잊고 지내곤 합니다.
가족의 참 사랑은 관심과 보살핌 속에
더욱 단단한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함 속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행복이 언제나 유효하길 바라며,
〈스포츠헤럴〉 5월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
스포츠 꿈나무들을
응원해 주세요

CDNDTCS
CDNDTCS
SPORTS
SPORTS
SPORTS

일 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나라 체육계가 염원하는 스포츠 강국으로 힘찬 도약을 위해서는 스포츠 꿈나무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의 정부와 체육계는 스포츠 꿈나무 육성과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스포츠원>은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인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상상하며, 모두가 스포츠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FOR ALL
FOR ALL
FOR ALL
FOR ALL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글·편집실

우리나라 스포츠의 미래를 이끌 체육 꿈나무들의 대축제인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구미를 비롯한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린다.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 만에 정상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깊다. 오랜만에 열리는 대면대회인 만큼 참가하는 학생선수들도, 대회 주최 기관인 대한체육회도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이전 대회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또한 경기를 즐기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2년 만에 온전한 모습으로 개최되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972년 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로 시작된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지난 50년간 우수한 선수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나아가 경기력을 향상하며, 학교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스포츠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또한, 학생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그간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자신만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 제49회 대회는 취소되었고, 2021년 제50회 대회는 한곳에 모여 치르는 종합대회가 아닌, 각 종목 협회·연맹 주관 대회로 치러져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올해는 다행히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점진적인 일상 회복 분위기에 힘입어 2년 만에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전한 모습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해마다 5월 중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에서 열리는 관행에 따라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경상북도 일원(구미시 등 13개 시·군, 44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오는 5월 28일 토요일부터 31일 화요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7,886명(선수 11,690, 임원 6,196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2년 만의 정상 개최인 만큼 2019년 제48회 참가인원 17,234명보다 652명이 증가했다. 경기는 크게 13세 이하부(초등학교부)와 16세 이하부(중학교부)로 나뉘며, 13세 이하부는 21개 종목을, 16세 이하부는 럭비, 자전거, 복싱, 레슬링, 역도, 사격, 하키, 펜싱, 근대3종, 카누, 조정, 볼링, 요트, 철인3종, 승마 15개 종목이 추가된 36개 종목을 겨루게 된다.



시·군별 배정 현황(36종목, 45개소)

구분	계	구미	포항	김천	문경	경주	경산	영주	안동	예천	대구	상주	부여	충주	울진
종목	36	12	7	2	1	1	2	2	3	1	1	1	1	1	1
경기장	45	15	10	3	1	2	3	2	3	1	1	1	1	1	1

경기 종목

구분	운영 종목
13세 이하부 (21종목)	육상, 수영, 축구, 야구소프트볼,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씨름, 유도, 검도, 양궁, 체조, 배드민턴, 태권도, 롤러, 골프, 바둑, 에어로빅
16세 이하부 (36종목)	육상, 수영, 축구, 야구소프트볼,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 자전거,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양궁, 사격,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근대3종, 롤러, 카누, 조정, 볼링, 요트, 철인3종, 골프, 바둑, 승마, 에어로빅

학생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점차 완화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눈앞에 둔 시점이지만, 대회를 주최하는 대한체육회는 학생 선수들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관리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이를 개최지, 시·도 선수단, 회원종목단체 등에 안내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방역의 기본 방향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현장 중심 방역으로 안전한 대회 운영, 대회참가자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를 통한 자율 방역 강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수립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참가자(선수단, 임원 등) 방역 자율성·책임성 부여 등이다.

또한, 봄철에 기승을 부리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회 운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육상, 축구, 야구소프트볼,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럭비, 양궁, 하키, 롤러, 카누, 조정, 요트, 철인3종, 골프, 승마 등의 실외 종목이나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는 종목의 경우 환경부 미세먼지 운영기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해당 회원종목단체 경기위원회에서 논의 후 경기 일정 조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조치 사항에 대해 대회운영본부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주의보'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령되거나 이상 징후가 발생되어 조치가 필요할 경우는 대회운영본부에서 결의를 통해 경기일정 조정이나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가 중단되거나 취소될 경우 경기 결과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규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 운영상 최종 결정이 필요로 할 경우는 대회운영본부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The 51st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체육 유망주들의 꿈과 희망을 함께 응원하는 자리

전국소년체육대회의 매력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학생 선수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할 수 있다는 점이며, 묘미 중의 묘미는 체육 유망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년 만에 치러지고, 참가자가 대폭 늘어난 만큼 뛰어난 기량을 갖춘 유망주들을 다수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상 2관왕이자 한국 육상의 단거리 유망주로 손꼽히는 이은빈(16·전남체중)과 기영난(13·경북 다산초), 기계체조 4관왕의 조세훈(13·울산 월평초)과 2관왕의 정민경(13·충북 용두초), 양궁에서 3관왕에 오르며 양궁 유망주로 손꼽히는 김동욱(13·대전 서부초) 선수 등이 출전해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다.

제51회 대회 시상 내역으로는 종목별 입상자들에게 주어지는 단체시상, 개인시상을 비롯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종목별 최우수선수상, 문화체육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특별표창 추천 등이 있다. 이밖에도 이번 대회에는 최연소 다관왕·메달리스트 선수 등을 대상으로 한 꿈나무상이 신설되어 학생 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한층 북돋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년간 대회 취소와 분산 개최 등으로 관중의 함성에 목말라 있을 체육 꿈나무들에게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그 어떤 대회보다 설레고 반가운 대회가 아닐 수 없다. 오랜만에 참가하는 전국 단위 대회를 통해 학생선수들의 꿈과 열정에 더욱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SPORTS1**

학생선수의 꿈의 무대, ‘전국소년체육대회’

글. 윤지운 한국체육대학교 경기지도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김연아, 박태환, 양학선을 꿈꾸는 선수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전국소년체육대회 일명 ‘소년체전’이다. 소년체전은 모든 체육 꿈나무들이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등용문이며, 미래의 꿈을 펼치는 첫 무대이다.



체육 꿈나무들의 축제,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역사

‘전국소년체육대회(이하 소년체전)’는 우리나라 초·중학교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종합경기대회로 학생선수들의 꿈의 무대이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의 체육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 체육 꿈나무 양성에 목적을 두고 1972년 5월 ‘전국스포츠소년대회’라는 명칭으로 제1회 서울대회가 개최되었다. 체육 꿈나무 선수를 집중 육성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전국체육대회로 부터 초등부와 중학교부를 독립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스포츠소년대회는 제4회 대회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87년 제16회 소년체전에는 14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 1만 3,000여 명 참가하는 대규모 체육행사로 발전했는데, 시·도 간 지나친 과열경쟁이 문제가 되어 1988년 제17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제18회 대회는 시·도별 종합대회로 운영방식을 바꾸었다. 그러다가 우수선수의 조기발굴이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이유로 1992년 다시 전국규모 종합대회로 부활했다.

소년체전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참가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참가자격을 획득하려면 지역별 예선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년체전 참가 선수는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상징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 소년체전은 체육 꿈나무의 경기력 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김연아, 박태환, 이용대, 모태범, 양학선 등 소년체전을 거쳐 발굴된 선수들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성장해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소년체전은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지역체육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0~1980년대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당시 소년체전 참가를 위해 학교와 지역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선수들에게 제공했고,

이 시설들이 오늘날 지역 체육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생활체육의 기반 시설로 발전하게 됐다.

소년체전을 둘러싼 이슈들

소년체전은 체육 꿈나무 발굴과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초등 및 중학교에 재학하는 어린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든지, 과열경쟁으로 인해 선수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들이다. 소년체전을 두고 발생하는 몇 가지 논쟁거리들을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체점제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

소년체전은 지역 간 경쟁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지역 간 경쟁에는 종목별, 메달별 점수를 부여해 시도 종합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소년체전에서 매기는 종합점수는 스포츠 경쟁을 통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도 시·도 간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선수들의 과도한 훈련 참가에 따른 부상과 학습권 침해 등이 소년체전의 가치를 퇴색시켜 종합체점제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 소년체전은 시·도별 종합체점과 메달 집계는 하지 않고 메달 시상식만 시행하고 있다. 시·도 간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체점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스포츠가 가진 경쟁 가치를 존중해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선수의 인권에 대한 논쟁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엘리트 스포츠 개혁을 위한 몇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회출전 일수 제한, 주중대회 참가 금지, 최저학력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학생스포츠 축제로 전환할 것을 포함한 내용의 권고였다. 소년체전 폐지와 학생선수의 인권문제는 큰 연관성이 없으며, 체육 꿈나무의 꿈을 짓밟게 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보류되었으나, 이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학생선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소년체전의 합리적 운영방법에 대한 숙고는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력 저하

2019년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체육계 전반의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소년체전을 포함한 대부분의 스포츠 대회가 축소·폐지되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경기출전이 거부되거나 코로나19 검사 거부로 몰수패를 당하는 등 스포츠 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신인 선수 선발 및 훈련 부족 등은 선수 육성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소년체전의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부작용 해소 위한 패러다임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소년체전을 만들어야 한다

소년체전이라는 토양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현재의 스포츠 강국이라는 지위가 가능했겠는가? 체육 꿈나무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소년체전은 지속되어야 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소년체전 운영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한 패러다임의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안하자면, 소년체전을 엘리트 선수들만의 축제에서 폭을 넓혀 모든 학생이 참가하는 학생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한 디비전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경기 참가, 경기 운영, 경기 분석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소년체전을 발전시켜야 한다. **SPORTS1**

60번째 국정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스포츠의 나라

글. 전영지 스포츠조선 스포츠팀 부장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식을 갖고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일주일 전인 5월 3일,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체육회가 주최한 '2022년 체육인 대회, 체육인이 바란다' 행사에 직접 참석해 '스포츠는 복지'라고 강조하면서 '모두의 스포츠'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혁신을 위한 분야별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110개의 국정과제 중 스포츠 관련 공약이 과연 반영될지, 어떤 내용이 어떻게 얼마나 반영될지에 현장 체육인들의 이목이 쏠렸다.



국정과제 60번째, 스포츠 관련 정책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기조 아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110가지 국정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현장 체육인들이 열망한 스포츠 관련 국정과제는 국정목표 3번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아래 11번째 약속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항목에 속했고, 110개의 국정 세부과제 중 60번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타이틀로 자리했다.

60번째 ‘스포츠’ 국정과제의 주요 목표는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 강화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ODA 체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6가지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 기본권 보장’, ‘전문체육 환경 개선’,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4가지다.

첫 번째, ‘스포츠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운동하는 국민에게 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인증센터 확충,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의 개편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전문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선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 전문체육 육성 강화,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포장 확대,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 체계 구축을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넣었다.

세 번째,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항목엔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 조성,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신산업 육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 등이 포함됐다.

네 번째, ‘국제 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항목엔 글로벌 인재양성(은퇴선수 경력 경로 개발), 2024년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e스포츠 및 태권도 등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 스포츠 종목 육성 등이 실천과제로 들어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당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2021년 60.8%였던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7년 68.5%까지 신장되고, 2021년 51조 5,000억 원 규모였던 스포츠 산업 시장은 2027년 10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위한 노력, 반가움과 아쉬움

체육계는 국정과제 60번째로 ‘스포츠’가 명시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역대 정부 중 국정과제에 스포츠를 타이틀로 내세운 예가 없었고, 이는 체육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60번째 국정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속엔 생활체육, 전문체육, 지방체육, 국제체육, 장애인체육, 스포츠산업 등 ‘모두의 스포츠’와 ‘스포츠의 모든 것’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스포츠 공약 대부분이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스포츠는 복지’라는 평소 소신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편 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드러났다. 생애주기별 스포츠, 스포츠 인프라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의 생활체육을 강화하되, 최근 약화되고 소외된 전문체육의 경쟁력과 국가대표의 자부심도 함께 제고하겠다는 ‘상생’의 정책이다.

다만, 학교체육 활성화, 스포츠 거버넌스 일원화, 재정 확대 등 핵심 공약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 특히 생활체육, 전문체육을 아우르는 세상 모든 체육의 풀뿌리이자 운동 습관의 시작인 학교체육 활성화는 명시되지 않았다.

‘풀뿌리’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고민

코로나19 3년차,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의 체력 저하는 심각하다. 지난해 교육부의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결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하위등급인 4·5등급 비율이 12.2%에서 17.7%로 급등했다. 신체활동은 줄고 아동비만은 늘었다. 서울 초·중고생들의 과체중 및 비만율은 2019년 26.7%에서 지난해 32.1%로 급증했다.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자살률은 OECD 상위권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 장기화가 학생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고·대학생 30%가 우울과 불안을 경험했고, 초·중·고·고·대학생 43.2%는 코로나 이후 교우관계가 나빠졌다. ‘혼자놀기’에 빠지면서 인터넷·휴대폰 사용시간은 73.8%나 증가했다. 모든 지표와 데이터가 경고등을 울린 지 오래.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책임질 학교체육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코로나19로 인한 체육교육의 공백, ‘코로나 세대’ 유·청소년들의 운동 격차는 심각하다. 입시 스트레스에 짓눌린 중고생들의 체육시간 시수 확보도 절실하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4차 혁명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 아이들을 스포츠로 이끌 스마트한 시설 등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교육부 국정과제에 언급조차 안 된 부분은 아쉽다. 학교체육의 주관부서인 교육부의 국정과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AI 등 신기술을 활용,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에 집중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체력이요, 인성이다.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함께 땀흘리고 뛰놀며 협동과 배려, 공정과 신뢰를 배우는 학교체육의 중요성은 간과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가 교육 실천과제에 포함된 결과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주말리그제가 도입되며 학교체육이 발전한 선례가 있다.

더 중요해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역할

문체부의 국정 실천과제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에 유·청소년 체육이 포함되겠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일반학생의 체육시간은 교육부의 관심과 주도적 정책 없인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스포츠기본법에 명시된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의제 설정과 조율, 집행 의지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스포츠 관련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 부서 장차관들의 조정, 심의, 협의체다.

당초 대한체육회와 체육인들이 주창한 일원화된 거버넌스로서 사무처, 집행력을 갖춘 국가스포츠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일단 국정과제 실천과제에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의 개편이 포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장에서 즐기게 주장해온,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돼온 부처 간 협업 부재, 효율적 거버넌스의 부재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얼마나 잘 해결해낼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문체부, 교육부 등 학교체육 유관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 전문가, 수용자인 학생,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가길 기대한다.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킬 ‘새로운 스포츠의 나라’를 위하여. **SPORTS1**

모든 학생이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대 열리길!

글. 윤종석 장훈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정리. 편집실

체육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육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얼마나 발산하는가는 학생들의 행복과도 관련이 깊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 학교체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몸담아온 윤종석 장훈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학교에서의 체육 현실,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이야기를 꺼냈다.

입시라는 굴레로 체육을 빼앗긴 학생들

1994년부터 축구부 감독을 시작해 30여 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학교는 모든 것이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선수들은 전문선수대로, 일반 학생은 일반 학생대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는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입시 때문에 체육 시간과 체육 교사들이 줄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니 말이다. 우리 학생들이 체육을 통해 건강을 다지고, 체육을 통해 우정·의리·배려 등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며 성장해야 하는데, 현실은 학교가 끝나면 모두 학원에 가기 바쁘다. 이는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다. 초·중등생도 마찬가지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학생들이 스포츠 한 종목씩은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학교에서 접한 스포츠를 통해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 시합을 하고 스트레스를 푼다. 우리나라도 방과후 활동이나 주말 체육을 통해 마음껏 땀을 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체육을 즐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체육을 즐길 수 없는 현실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한다.

학생선수들도 대학을 가기 위해 애쓰는 건 마찬가지다. 운동부 선수들은 수시만을 통해 대학을 간다. 그러다 보니 8월 안에 모든 대회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한겨울의 추위, 한여름의 더위와 싸워가며 경기를 펼친다. 좋은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 국가대표로 뛰고 싶은 꿈을 수시 하나에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이 인생의 모든 게 아닌데, 전문선수를 꿈꾸는 운동부마저 대학을 목표로 달려가는 현재 시스템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운동을 목표로 삼은 아이들은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기회 주어져야

학교 운동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초등학교 운동장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

장 넓고 쾌적한 곳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오후 4시 이후에는 학교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축구를 하는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 대신 학교 근처 클럽팀에서 가서 대여료를 내고 뛰어야 한다. 넓고 쾌적한 운동장 대신 지하, 옥상, 공원 등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상황이다. 민원이 골치 아파서 학교에서 체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결코 말이 안 된다. 또 학생 저마다 처한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가령, 강원도 정선에는 축구팀이 하나도 없다. 그 친구들이 축구를 하려면 축구팀이 있는 지역으로 유학을 나와야 한다. 하지만 초·중등생들은 합숙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축구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의 꿈을 위해 부모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현실인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이러한 행정은 스포츠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탁상공론의 행정이 선수 발굴을 막는 요소이다. 이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까지 막는 것이다.

체육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삶이 돼야

새로운 정부가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전면 재검토’를 내놔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편 가르지 않는 ‘모두의 스포츠’를 약속했다. ‘모두’의 개념은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학생과 일반 학생이 모두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모두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체육 관련 정책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이과와 문과 수업이 다르듯이,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정책이 이제는 필요할 때다.

시대가 바뀌면서 스포츠에도 다양한 분야가 생겼다. 과거에는 국가대표 선수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체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다양하게 육성하는 게 목표다. 체육 분야에 종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만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이 생겼고,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대학만이 모든 것이 아니다. 스포츠를 통해 학생들이 꿈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열려야 할 것이다. **SPORTS1**

100년의 역사,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글. 편집실

‘제100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가 5월 6일부터 15일까지 경북 문경국제정구장에서 진행됐다. 이 대회는 단일종목로는 가장 긴 역사, 국내 최초의 여성만을 위한 스포츠 이벤트 등 우리 스포츠 역사를 새롭게 썼다. 무려 1세기를 이어온 대회 의의를 되짚어 보고, 이번 대회의 주요 경기 결과를 소개한다.



100년, 정구인들의 ‘꿈의 무대’를 제공하다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이하 동아일보기 대회)는 매년 5월 개최되는, 초·중·고·대·일반부 120여 팀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다. 무려 100년 동안 이어진 대회는 정구인들에게 ‘꿈의 무대’를 제공했다. 이는 단일종목으로선 국내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이다. 또한 여성만이 참가한 국내 최초의 스포츠 이벤트라는 데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1947년부터는 여성 동호인 클럽 참가하여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같이 경기를 진행한 통합형 대회가 됐다.

동아일보기 대회는 1923년 전국 8개 여고부 선수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제일고여에서 ‘전조선여자정구대회’로 시작했다. 당시엔 여성의 외출조차 금기시 하는 분위기였기에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후 여자 대학부, 여자 일반부, 여중부 등이 추가되었다. 2006년부터는 남자 일반부가 추가되었다. 남성의 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회 창설 83년 만에 남자부가 신설됐고, 2007년 85회 대회부터 개최지를 문경으로 옮겨 올해까지 16년째 열리고 있다.



대회 주요 연혁

- **1923년** 대회 창설(여고부 대회)
- **1939년** 17회 여자대학부 추가
- **1947년** 25회 여자 일반부 추가
- **1954년** 32회 여중부 추가
- **1960년** 38회 여고부 1, 2부 분리
- **1972년** 50회 부녀부 추가
- **1972년** 50회 여중부 1, 2부 분리
- **1990년** 65회 부녀부 1, 2부 분리
- **1996년** 74회 부녀부 1, 2, 3부 분리
- **2002년** 80회 여초부 추가
- **2006년** 84회 남자 일반부 추가
- **2007년** 85회 남자학생부(초·중·고교·대학)추가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선수들의 열기, 다시 찾은 관객들

5월 6일 오후 6시, 문경국제정구장에서 진행된 개회식은 선수단 입장으로 시작해 화려한 식전 행사, 대회 유공자에 대한 공로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스포츠 축제를 바라보는 관중들의 환호성은 코트 지붕이 떠나갈 정도로 우렁찼다.

올해는 122개팀 1,000여 명이 참가해 남녀 단체전과 단·복식, 혼합복식 등에 걸쳐 기량을 겨뤘다. 특히 관중이 입장한 가운데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해외 팀(태국)도 참가했다.

가장 관심이 높은 여자 일반부 단체전 결승은 개최지인 문경시청이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옥천군청에 우승기를 내줬던 문경시청이 1년 전의 패배를 설욕하며 2년 만에 우승기를 되찾았다.

남자 일반부 단체전 우승은 수원시청이 차지했다. 2008년 창단한 수원시청은 그동안 여러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동아일보기 대회에서는 준우승만 3차례. 그러다 이번 100회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기를 거머쥐게 된 것이다. 여고부 단체전은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가 1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여 당당히 100회 대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되었다.

5월 15일, 제100회 동아일보기 대회는 막을 내렸다. 다시 찾은 관중들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을 마음껏 쏟아낸 선수들. 그들이 만든 감동의 이야기는 다음 100년을 약속하며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다. **SPORTS1**



즐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다

양궁 국가대표

김제덕

글. 편집실

2020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김제덕 선수(경북일고 3학년)가 지난 4월, 2022년 항저우아시안게임 양궁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인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에 한창인 김제덕 선수를 만났다.



베테랑 선수들과 뛸 수 있는 남자 단체전 금메달 획득이 1순위 목표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 2관왕 김제덕 선수가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따냈다.

“이번 선발전을 치르면서 도쿄올림픽 선발전 때보다 제 자신이 한층 더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죠. 제 꿈 1순위가 올림픽,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에서 모두 금메달 획득이거든요. 그 꿈에 한 발짝 나아갔다고 생각해요.”

평소 김제덕 선수는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먼저 이야기하고, 개인전과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다음 목표로 소개해왔다. 왜 남자 단체전 금메달 획득이 우선일까.

“오진혁 선수, 김우진 선수 같은 베테랑 선수들과 함께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활을 어떻게 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국가대표가 됐는지, 어떻게 마인드컨트롤을 하는지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우진 선수의 조언은 도쿄올림픽에서 큰 도움이 됐다.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나서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김우진 선수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좋다. 그러나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먼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우진 선수의 조언 덕분에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부

담이나 긴장을 조금 풀 수 있었습니다.”

김제덕 선수는 초등학교 때 양궁을 시작했다. 양궁부를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없자 친구가 장난처럼 참여해 보라고 한 게 계기가 됐다. 하지만 우연히 시작한 양궁을 배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목받기 시작했다.

“양궁이라는 스포츠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만점을 쏠던 건 당연히 아니에요. 양궁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기보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즐기다 보니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자신 있게 활을 당기고, 화살이 날아가 ‘엑스텐’에 꽂힐 때 쾌감을 느껴요. 그 쾌감을 가장 좋아합니다.”





도쿄올림픽처럼 또 다른 기회가 될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최근 9월 개최 예정이던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시안게임이 무조건 열린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온 김제덕 선수는 도쿄올림픽 연기로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었듯, 아시안게임 연기 역시 자신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아쉬움이 앞섰죠. 하지만 지금은 더 열심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아시안게임이 연기되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새롭게 치러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양궁 실력을 자랑한다. 그만큼 선수 간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김제덕 선수는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려면 ‘어차피 치러야 하는 선발전’이기 때문이다.



“양궁에서 김제덕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잊히지 않게
하고 싶어요. 경기를 즐기는
마음으로, 경기에 최선을 다해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쉬운 선발전은 없지만, 어떤 대회를 뛰든 간에 계속 선발전을 거쳐야 합니다. 시간을 확보한 만큼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좀 더 많이 배워 아시안게임 선발전에 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연기 전후의 훈련 방식도 바뀌지 않았다. 아침 6시에 운동장을 2km 정도 뛰 후 코어를 강화하는 웨이트트레이닝을 한다. 야간 연습까지 포함하면 하루 최대 500발 정도를 쏜다.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생겼을 뿐이다.

김제덕 선수는 불과 며칠 전인 5월 4일에는 야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양궁 국가대표팀 특별훈련에 참여했다.

“지난해 시구를 한 적은 있지만, 야구장에서 경기를 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고, 북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북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쿵쿵 뛰더라고요. 평소보다 긴장을 많이 했지만, 즐기면서 하자고 계속 생각하면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양궁 역사에서 잊히지 않는 선수로 남았으면

아무리 양궁을 즐기는 마음으로 한다 해도 스트레스는 생기기 마련이다. 김제덕 선수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할까.

“일단 활로 쌓인 스트레스는 활로 풀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활로도 못 푸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성적이 좋지 않거나, 시합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하고 느낄 때면 좋아하는 게임(메이플스토리)나 축구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요.”

MZ세대들의 활약이 크게 주목 받았던 도쿄올림픽에서 김제덕 선수는 주먹밥 쿡야, 아 기호랑이 등 ‘별명 부자’가 됐다.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는 ‘덕구’라고 불린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양궁 팬들이 확실히 더 늘어났다고 느끼는 김제덕 선수는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2022 양궁월드컵대회에서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양궁 국가대표팀이 올해 처음 치르는 국제대회다.



“팬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뿌듯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번 대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김제덕 선수의 우렁찬 파이팅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도쿄올림픽에서 김제덕 선수는 힘찬 함성으로 자신은 물론 선수들에게 응원을 불어넣었다. “파이팅을 외치다 보면 목이 약간 쉬더라고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긴장감을 풀어나가는 방식 대신 파이팅을 작게 외치더라도 제 자신이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을 조금씩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2004년생, 양궁 국가대표팀 막내 김제덕 선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현재진행형’ 선수다. 차근차근 훈련을 쌓아 실력을 발휘할 대회를 기다리고 있다. “양궁에서 김제덕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잊히지 않게 하고 싶다”는 김제덕 선수의 바람처럼 세계 최강 궁사로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응원한다. **SPORTS1**

기업과 선수 모두 Win-Win! 스포츠마케팅의 세계!



글. 편집실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를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이 스포츠를 매개로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그렇다고 스포츠마케팅이 기업에게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기업의 후원은 스포츠 구단이나 선수들이 더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기업은 왜 스포츠를 좋아할까?

기업은 오래전부터 스포츠를 마케팅에 적용해 왔다. 올림픽 같은 국제적인 대회의 후원을 비롯해 프로 스포츠단 결성과 선수 후원 등도 그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1852년 미국 뉴잉글랜드의 한 철도 회사가 하버드대와 예일대 운동선수에게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하며 자사를 홍보한 것을 스포츠마케팅의 효시로 보고 있다.

기업이 스포츠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스포츠가 가진 힘 때문이다. 선수들은 경기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그동안의 노력을 쏟아 붓는다. 관중들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끝까지 경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같은 팀이나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급속히 친밀해진다. 세상의 어떤 콘텐츠가 이만큼의 흡입력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렇듯 스포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로 단결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스포츠의 힘을 기업의 이미지 및 제품 인지도 제고에 활용한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는 환산하기 어렵다. 올해 초 치러진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로 꼽히는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은 경기 뿐 아니라 TV 중계가 진행되는 중간에 등장하는 광고도 시청자의 큰 관심을 모았다. 30초 분량의 광고 비용은 약 700만 달러(약 84억 원). 하지만 단지 비용만을 두고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시청자가 대략 1억 명에 이르는 만큼 기업들이 소비자에 가장 알리고 싶은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창구가 되기 때문이다. CNN은 "슈퍼볼 광고는 이를 시청하는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광고 효과를 고려하면 700만 달러라는 비용도 아깝지 않다"고 평가했다.

스포츠마케팅의 영역과 효과

스포츠마케팅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스포츠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마케팅이고, 다른 하나는 스포츠를 마케팅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스포츠 자체의 마케팅은 스포츠가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프로팀의 팬 확보, 프로팀 회원모집 등 리그를 활성화시키거나 스포츠를 팬 층에게 직접 상품화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를 활용하는 마케팅은 스포츠가 마케팅의 수단이 되고 기

업 상품이나 기업 자체의 이미지가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각 선수에 대한 스폰서 및 후원, 각종 행사를 지원하며 기업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소비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국제 스포츠의 방송 중계권, 올림픽 스타를 모델로 기용한 광고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스포츠마케팅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특정 스포츠 종목이나 이벤트를 통해 보다 쉽게 시청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비상업적 상황에서 대상 집단에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후원 활동은 광고를 기피하는 대중에게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와 설문을 통해 많은 소비자가 기업이나 제품의 이미지를 그와 관련된 스포츠팀 또는 선수와 동일시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이 기업 이미지와 제품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수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버팀목

스포츠 선수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오랜 시간 훈련하고 노력한다. 또한 선수가 아무 걱정 없이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하려면 그만큼 돈도 필요하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선수에게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 하지만 일부 프로 구단을 제외한 많은 구단과 선수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운동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후원은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준다.

기업은 선수를 후원해 선수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선수는 경제적인 걱정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것이다. **SPORTS1**





더 재미있는
스포츠를
만들어
주세요

리베로? 0.4초?

적용기준이 다른 규칙?

글. 편집실

배구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양팀이 공격과 수비로 경쟁을 벌이는 종목이다. 볼을 놓고 다투고, 손으로 강타를 때리고 블로킹을 하는 등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된다. 보는 것만으로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배구,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다. 지금부터 배구의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보자.

배구가 처음 시작된 곳은 1895년 미국. 당시 매사추세츠주 홀리오크시의 YMCA 체육부장 윌리엄 모건은 격렬한 농구보다 유연하고 차분한 게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배구를 창안했다.

당시에는 농구처럼 5명이 경기를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1918년 6명이 세트당 15점으로 경기하고 득점에 성공하면 선수들이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6인제 국제규칙이 확립됐다. 2000년부터는 세트당 25점 랠리포인트제로 국제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의 배구는 6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가로 18m, 세로 9m 크기의 코트에서 2m가 넘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상대 코트에 공을 넘겨 공이 바닥에 닿으면 득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상대편 코트로 공을 돌려보낼 때는 공을 최대 3회 접촉할 수 있는데, 이때 한 사람이 연속해서 공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 경기는 5세트 중 3세트를 먼저 가져가는 팀이 승리하는데, 세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25점을 득점해야 한다. 단 5세트는 15점이다.





혼자만 다른 옷을 입은 선수, 리베로

배구는 경기 시작 전에 14~18명의 선수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 이중 실제 경기에 뛰는 선수는 6명인데, 그중 1명의 '수비전문 선수'를 등록한다. 이 선수가 같은 팀이지만 다른 색 유니폼을 입는 선수, '리베로'다. 리베로는 이탈리아어로 '자유'를 뜻하는데, 배구에서는 '교체가 자유로운 선수'를 의미한다.

서브·블로킹·공격을 할 수 없고 오로지 수비와 서브리스브만 가능하다. 서브권을 획득할 때마다 시계 방향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일반선수와 달리 위에서 앞줄로 이동할 때가 되면 다른 선수로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정식 교체 선수와

달리 부심의 승낙 없이 코트에 들어가는 리베로는 한 세트에 몇 번이고 교체 투입될 수 있다.

리베로의 유니폼이 다른 색인 이유는 자유로운 교체를 상대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비전문 선수의 공격 제한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또한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면 자유로운 교체를 이용해서 체력 싸움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리베로의 옷을 배구팀과 다른 색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배구 규칙에서는 이에 대해 '리베로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리베로'에 대한 주요 규칙

팀의 다른 선수들과 구분되는 옷을 입는다.

한 세트에 몇 번이고 교체 투입될 수 있다.

후위에만 들어갈 수 있다.

서브, 블로킹, 전위지역(어택라인 앞)에서의 오버토스를 할 수 없다.

시속 120km 넘는 광속 서브와 스파이크

배구 경기는 상대팀으로 공을 넘겨주는 '서브'로 시작된다. 과거 배구 경기에서는 상대방 공격수를 묶어 두기 위해 공격수한테 공을 보내는 목적타 서브를 주로 이용했는데, 최근엔 득점을 위한 다양하고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가 각광을 받고 있다. 스파이크 서브는 말 그대로 스파이크와 비슷한 파괴력을 가진 서브를 말하는데, 세계적인 강서버들의 서브는 시속 120km를 상회한다. 강력한 서브를 위해서는 정확한 리듬과 타이밍이 중요한데, 대개 볼이 3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가 최적의 타이밍으로 알려져 있다.

배구 경기에서 득점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격 기술은 '스파이크'다. 스파이크를 성공해 득점하기 위해서는 공격수는 높이와 힘을 바탕으로 스피드가 있고 강력한 볼을 상대편 코트를 향해 때려 넣어야 한다. 스파이크 공격은 높은 타점에서 스파이크하는 '오픈 공격', 세터와 공격수의 호흡을 통해 정확하게 토스된 볼을 빠르게 스파이크하는 '속공', 세터의 토스에 대해 다른 공격수의 위장 점프를 이용해 스파이크하는 '시간차 공격', 세터가 토스한 볼을 후위에 있는 공격수가 네트에서 3m 떨어진 어택라인 뒤쪽에서 점프해 스파이크하는 '후위공격' 등이 있다.

시속 120km, 도달 시간 0.4초

스파이크 된 시점부터 수비수나 코트에 닿았을 때까지
소요시간은 0.4초 내외

프로 수비수의 반응시간 0.24초,
운동시간 0.11초를 더하면 0.35초다.
공격수가 수비수 근처로 공을 보내지만 않으면
스파이크로 쉽게 득점할 수 있다.

강력한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 블로킹

강력한 스파이크는 막을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수비팀에는 '블로킹'이 있기 때문이다. 블로킹은 상대의 공격을 네트 앞에서 저지하는 수비를 말한다. 상대의 위협적인 스파이크를 되려 득점으로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강력한 공격을 상쇄시켜 자기 진영에서 공격을 세팅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블록과 그 이후 뒷쪽으로 흘러나온 공을 처리하는 블로킹 커버 등의 연계 플레이를 가능케 한다.

1964년 도쿄올림픽 때부터 블로킹할 때 오버네트는 반칙이 아니라고 경기규칙을 개정되면서 블로킹은 단순 방어기술을 넘어 상대의 공격을 직접 '셧아웃(Shut-out)'하는 공격기술로 발전했다. 성공적인 블로킹은 좌우측 방향으로 이동할 때 스텝 방법의 선택,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원하는 위치로의 빠른 이동, 블로커의 점프 높이 등에 달려 있다.

또 다른 수비 기술 중 상대방의 강력한 스파이크를 코트에서 받아내는 것을 '디그'라고 한다. 디그는 수비의 꽃으로 블로킹을 뚫고 날아오는 스파이크를 제대로 받게 되면 반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디그 중 상대방의 첫 번째 공격인 서브를 받아내는 것은 '리시브'라고 부른다. **SPORTS**

오버네트와 블로킹

오버네트는 공격할 때와 블로킹을 할 때,
적용 기준이 다르다

네트 위반(O) 스파이크 시 손이나 팔이 상대 팀에 들어간 상태에서
볼과 상대 선수에 닿으면 안 된다.
네트 위반(X) 상대팀의 공격 히트에 대해 블로킹을 할 때는
손과 팔이 네트를 넘어가도 된다.

지구촌, 태권도에 반하다

글. 편집실

전 세계 210개국,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수련하는 무예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 국기(國技) 태권도다. 태권도는 전 세계의 수많은 무술 중 가장 세계화된 무예로 평가 받는다. 지구촌이 반한 태권도의 매력은 무엇일까?



태권도, K-팝 이전에 가장 성공한 한국 문화

2021년 9월 16일,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산하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NBC 생방송 '아메리카 갓 탤런트'(AGT) 결승전을 치렀다. AGT는 우승 상금 약 11억 원, 시청자는 1,000만 명이 넘는 미국 내 최대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시범단은 결승전에 앞서 열린 예선 경연에서도 심사위원 전원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 프로그램의 진행자이자 스포츠 스타 출신인 테리 크루즈는 태권도를 '용기와 자신감, 상호 존중에 관한 것'이라며, 결승전 직행을 의미하는 골든부저를 누르기도 했다.

결승전에서 시범단은 한층 더 화려한 무대를 준비했다. 하늘을 나는 듯한 고공발차기, 절제된 칼군무 등 시범단의 동작 하나하나에 관객들은 뜨거운 반응으로 화답했다. 비록 우승을 놓쳤지만 시범단의 무대는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태권도를 깊이 각인시켰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유튜브 등을 통해 시범단의 공연을 본 이들의 찬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인들은 지금 태권도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스포츠를 배우고 싶어 한다.

실제로 태권도는 전 세계의 수많은 무술(武術, Martial Arts) 가운데 세계화와 스포츠화에 가장 성공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전 세계 210개국이 세계태권도연맹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태권도를 K-팝 이전에 가장 성공한 한국 문화로 평가하기도 했다.

무술을 넘어

평화와 희망을 전달하다

태권도가 이토록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서로의 기량을 뽐내는 품새부터 더 높이, 더 많이 회전하는 고난도 시범으로, 그리고 음악과 시나리오를 가진 종합 문화예술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이 AGT에서 선보인 무대는 태권도의 기본동작과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 특기기술 등이 완성도 높게 조합돼 있었다.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고난도 격파 기술과 강인한 동작들로 이루어진 시범은 관중들에게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주며 흥미와 감동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태권도의 세계화는 진입 장벽이 낮은데서 기인한다. 운동할 때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수준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에서나 즐길 수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2015년부터 요르단, 터키, 르완다 난민촌 등에 태권도를 보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이 태권도를 매개로 전하는 메시지 역시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의 보급, 특히 제3국의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태권도를 보급하는 이유에 대해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 무술을 넘어 평화와 희망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전쟁과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한다.



명실상부 세계적인 스포츠,

그 위상에 맞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때

도쿄올림픽 태권도 참가국은 난민팀을 포함해 모두 61개국이었다. 개막식에는 태권도 선수가 10명 이상 기수로 참여해 각 나라에서 태권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러시아가 두 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고, 7개 나라가 8개의 금메달을 나눠 가졌다. 태권도로 처음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나라도 우즈베키스탄, 북마케도니아, 이스라엘 3개국에 이른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태권도는 모든 올림픽 종목 중에 가장 관대하다. 기존에 국제 스포츠계에서 소외됐던 국가들이 시상대에 오를 수 있는 희망을 줬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중주국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일환으로 태권도 경기 규칙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센서 대신 심판의 판정에 맡기고 발차기 등 공격 관련 규칙을 재정비해 경기의 재미를 더하자는 의견 등이 그것이다.

태권도는 이제 명실상부 세계적인 스포츠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우리의 태권도가 더욱 발전해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SPORTS1**

골프와 함께 '엔조이 라이프(Enjoy Life)'

35골프

글. 편집실

30대에서 50대 골퍼들이 모인 '35골프' 동호회는 '엔조이 라이프'라는 슬로건 아래 활동하는 유쾌한 골퍼들의 모임이다. 서로를 배려하며 즐거운 인생의 동반자로서 골프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장민 회장을 만났다.

GO LIFE



Q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와 활동 중이신 동호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35골프는 이름처럼 30~50대 골퍼들의 동호회입니다. 주로 분당·수자·용인·동백·수원 등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죠. 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35골프의 회장을 맡고 있는 장민입니다.

우리 동호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파인크리크 10팀, 둘째 주 월요일 화산CC. 6팀, 셋째 주 수요일 충청권 3~5팀, 넷째 주 불특정구장 3팀 등의 정기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없을 때도 ‘밴드’를 통해 소통하며 친목을 다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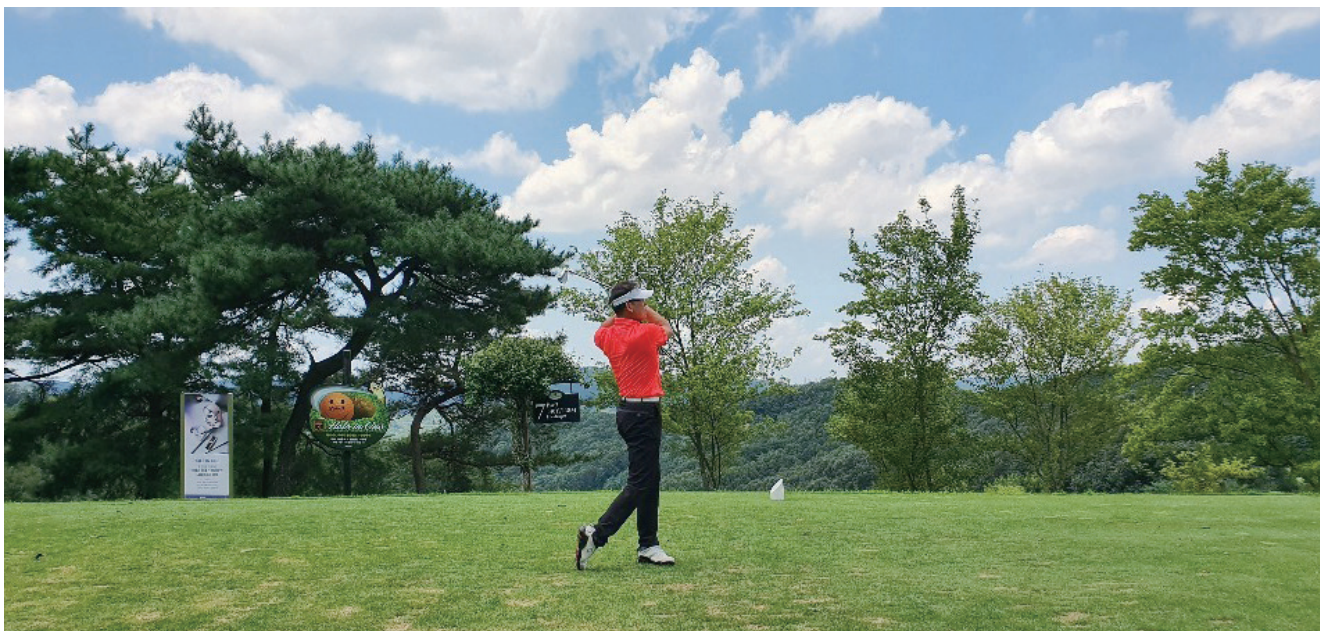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열 팀씩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라운드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최근 거리두기 제한이 다소 풀리면서 활동에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Q 골프 동호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골프를 시작한 지 30여 년이 되었는데요. 워낙 골프를 좋아했기에 평소에 같이 운동 하던 지인들과 함께 동호회를 만들면 어떨까 이야기하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 같은 마음 이었는지 창립 멤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죠. 당시 회원들이 대부분 30~50대라 동호 회 이름을 ‘35골프’라고 정했구요.

골프는 보통 4명이 팀을 이루어 운동을 즐기는 만큼 동호회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비록 함께 경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을 나누고, 어려운 일은 함께 도우며 생활하다 보면 삶이 훨씬 즐겁고 행복해지는 걸 느낍니다. 골프라는 공통의 관심사 가 있으니 서로 잘 통하는 건 당연하고요.





Q 생활체육으로서 골프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골프는 심판이 없는 경기입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각자가 스스로 심판이 되는 운동이지요. 그 때문에 본인한테 정직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매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골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호회는 매년 회장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많은 회원이 함께 자연을 즐기며 좋아하는 골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 같은 날이죠. 연말에는 함께 한 해를 정리 하자는 의미에서 송년회도 진행하고 있고요. 운동을 매개로 만나 사람끼리 사는 이야기도 하고 매달 자연에서 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항상 인상적이고 즐겁습니다.

Q 동호회 활동을 통해 얻는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35골프만의 장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경기권으로 이사 온 지 약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 아는 이들도 많지 않았는데 동호회를 통해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느낌입니다.

우리 동호회의 장점은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진들은 사리사욕보다는 회원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활동합니다. 오롯한 '골프 사랑'만으로 모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Q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 동호회 슬로건이 '엔조이 라이프(Enjoy Life)'입니다. 골프를 통해 동호회원들과 함께 나이 들며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으면 합니다. 더불어 언제까지나 회원들에게 즐거운 놀이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 의리와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동호회 수장으로서는 그 점을 반드시 지켜지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미래의 동호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호회는 가장 편안하게, 오롯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모임입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정을 쌓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35골프와 함께 골프도, 우정도 쌓고 싶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세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일도 놀이도 골프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함께 더불어 살며 서로에게 이로운 사람들이 되는 관계, 혹은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 SPORTS1



35골프동호회를 소개합니다

밴드 및 온라인 활동

<https://band.us/n/a0a171H5NfbcO>

동호회 조직일

2014년 3월

동호인 수

200여명

모임 주기

한 달에 한 번 지역별 라운드 개최

대회 혹은 연례활동

회장배 대회, 송년회



학교체육 중점 프로그램을 통해 더 건강해진 학교, 더 활기찬 학생들!

배명고등학교

글. 편집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자리한 배명고등학교는 ‘성실, 근면, 박애’를 교훈으로 1934년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었다. 이후 90여 년 동안 한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역할해왔다. 현재 ‘배려와 나눔의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송고한 건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배명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체육 중점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배명고등학교와 학교체육 담당 천항욱 선생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배명고등학교는 1934년 탄암 조용구 선생이 '민족의 소금이 되고 인류의 빛이 되라'는 교시로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사재로 세운 민족사학입니다. 학교체육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1963년에 창단한 야구부는 박철순, 김동주, 박빈 등 유명 프로야구 선수를 다수 배출했습니다. 또한, 36년 전부터 체육계열 진학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명고등학교에서 13년째 고3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친 뒤 잠시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나왔다가 교직에 큰 매력을 느껴 지금까지 정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Q 배명고등학교가 체육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학교체육 중점 학교로서 그간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모든 입시 지도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 비용 역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사업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체육 분야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단위 학교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 체육인 육성'에 큰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36년 전부터 체육계열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15년 체육거점학교, 2016년 체육중점학교(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 안정적으로 체육중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2학년에 체육교육과정 1개 학급을 추가했습니다.

Q 학년별 학교체육 특성화 교육 과정과 참여하는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지도교사는 몇 분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어떠한 교과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들려주세요.

체육교육과정 학급은 25명 내외로 구성되며, 저를 포함한 체



육교사 2명이 담임을 맡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지원하는 전문 강사 선생님이 1분 더 계십니다. 3학년, 2학년 각 1학급씩 모두 2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심화수업이 3학년은 12단위, 2학년은 4단위가 매학기 개설됩니다.

모든 수업은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참여하는 수업으로 구분됩니다. 3학년 일반학생은 '체육지도법', '건강체력관리'를, 3학년 학생선수는 '체육전공실기심화', '체육전공실기응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2학년 일반학생은 '스포츠개론', 학생선수는 '체육전공실기기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학생과 학생선수 과정을 구분해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학교 체육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이때 일반학생 체육교육과정에선 체대입시 실기를 다루지 않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Q 배명고등학교만의 특성화 프로그램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서 체대입시 수업을 체육교육과정 정규교육과정에선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우리 학교는 실기 부분을 체육거점학교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월·수·금·토요일 방과 후 3시간씩 실기연습을 진행합니다.

둘째, 체육교육과정에서 가장 특별한 프로그램은 체육진로특강입니다. 체육계열 일반학생으로 진학해, 체육계열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을 초청해 1학기에 15회 특강을 진행합니다. 체육을 전공한 이후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몇몇 학생들은 졸업한 뒤에도 특강 강사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이 정신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진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체육계열 직업 대부분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존 체육전공자들이 도전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개척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함양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❶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응이 좋은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단지 입시를 수월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좀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가 체대입시학원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기초 학업 역량(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학원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역량이 상당 부분 결핍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학교는 입시를 뛰어넘는, 미래체육 인재의 기초 역량을 닦는다는 소중한 희망을 키우는 것을 소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잘 이해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❷ 학교 입장에서 생각하는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학교가 더 건강해지고, 학생들은 생기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여러 체육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교가 건강해지는데 씨앗처럼 작용합니다. 체육교육과정 중심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참여가 확대되는 학교스포츠클럽이 대표적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주말까지 활동이 이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학생들이 즐겁게 등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에 100명 넘는 학생이 출전을 준비하고 있고, 언제나 학생들로 북적이는 탁구장의 모습 등이 좋은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Q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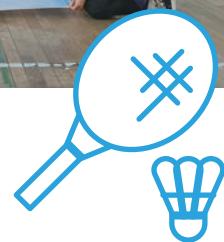
체육/스포츠에 접근할 때 재미 수준을 넘어 신체 움직임이라는 현상을 과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정도라면 재미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전공자는 그 이상의 안목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관한 시범을 일상의 범위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인상 깊었던 상황이나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2010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출전해 여러 종목에서 매년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출전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요구되지만 일련의 과정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큰 추억으로 남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널리 알려져 2017년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야구부 하늘로쳐가 공중파 방송에 20부작으로 방송된 적도 있습니다(KBS 우리들의 공교시 시즌2: 야자타임). 당시 함께 스포츠클럽활동을 한 프로야구 전 SK 와이번스 이만수 감독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Q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스포츠가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매우 유익한 인류의 문화유산임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교사가 멈추는 순간 학교 교육도 함께 멈추기 때문입니다. 체육교육과정은 제겐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SPORTS**



배명고등학교 교육활동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기	내용	대상
체육진로특강	1학기 매주 월요일 15:00~16:40	체육계열 전문가 진로특강	체육교육과정 2·3학년 및 체육교육과정 희망 1학년
기업가정신	2학기 매주 월요일 15:00~16:40	기업가 정신 개발	체육교육과정 2학년
체육거점학교	1·2학기 월·수·금 16:30~	체대입시 실기연습	서울시교육청 일반계 고등학교 신청자
학교스포츠클럽	연중(매일 아침, 토요일)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	배명고 1·2·3학년 신청자 중 선발
Sports Visoin in English	하계방학 중	원어민 체육교사와 함께하는 북미·유럽 스포츠 탐색	체육교육과정 2·3학년 및 체육교육과정 희망 1학년
과학적 스포츠탐구 캠프	하계방학 중	대학교수와 함께 하는 체육에 대한 과학적 접근	체육교육과정 2·3학년 및 체육교육과정 희망 1학년
대학 및 기업탐방	동계방학 중	체육대학 및 스포츠기업탐방	체육교육과정 2학년
수중스포츠	동계방학 중	스킨스쿠버 수업	체육교육과정 2·3학년 중 신청자

Let's play 'IT'

MZ세대의 건강관리

글. 편집실

지금 우리 사회는 'MZ세대'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한다. 경제활동의 주축이자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운동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 또는 학원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동했다면 최근에는 IT 기기를 활용한 더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법이 크게 주목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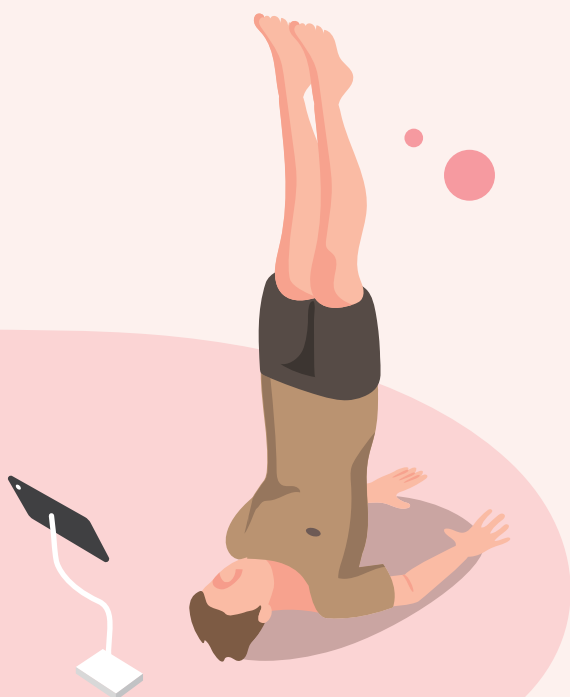
몸건강 지키기, IT 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재미있게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디지털 세상.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한다고 해도 이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창궐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듯, IT가 주도하는 온라인 문화도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생활의 터전이, 문화가 더 빠른 속도로 온라인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측한다.

헬스케어와 운동 부문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지속된 팬데믹과 1인 가구의 증가는 건강관리를 돕는 다양한 앱과 IT 제품들을 등장시켰다. 그중 하나가 온라인 구독형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스마트 미러 등을 이용한 운동이다.

온라인 구독형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온라인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정기구독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운동 수준과 몸에 맞는 구독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으로 정기구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헬스장을 다니지 않아도 트레이너와 대면으로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대면에 대한 부담감과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현대인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스마트 미러는 디스플레이와 거울을 결합한 것을 말하는데, 거울처럼 벽면 등에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스마트 미러를 활용하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운동하는 것보다 쉽게 자신이 제대로 운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트레이너의 코칭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밖에 닌텐도를 활용한 운동도 인기를 끌고 있다. 닌텐도를 TV에 설치하면 사용자의 움직임을 센서가 감지해 동작이 그대로 TV화면에 나타난다. 운동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 가족이 함께 운동하기에 좋다. 이처럼 MZ세대 운동은 IT 기기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변화했다.



정신건강 지키기, 소소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찾아 하고, 온라인으로 공유

신체건강만큼 정신건강도 중요하다. MZ세대는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신건강을 챙기고 있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지난해 전국 15~40세 남녀 9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MZ세대는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주로 '맛있는 음식이나 음료 즐기기(51.1%)'나 '음악·독서·영화·게임 등 콘텐츠 소비하기(49.2%)'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맛집 탐방, 영화관 가기 등에 제약이 생기자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풀기 위한 돌파구로 자기계발을 하며 내면적 만족과 성취를 느끼는 것으로 변화했다. 이같은 MZ세대들의 트렌드를 '리추얼(Ritual)'이라고 하는데, 리추얼은 규칙적으로 행하는 의례나 의식을 뜻하는 단어다.

최근 유행했던 '미라클 모닝'도 리추얼 트렌드에 속한다. 미라클 모닝은 본격적인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2~3시간 전에 일어나 명상, 운동, 공부 등 자신만의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비슷한 시기, Z세대 사이에는 '갓생'이 인기를 끌었다. 갓생은 '갓(신·God)'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소소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갓생의 실천 리스트는 '아침 7시 일어나기', '하루 물 4잔 마시기', '일기쓰기' 등 미라클 모닝에 비해 비교적 소소하다.

이처럼 MZ세대의 건강관리는 다양한 IT 기술과 융합하며 발전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꼭 맞는 운동을 추천하며, 소셜 기능으로 사용자를 독려한다. 앞으로 IT 기술이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지 기대된다. **SPORTS1**

우리는 모두, 봄햇살처럼 눈부셨습니다!

국제대회, 국내대회

글. 편집실

스포츠 현장에서 얻는 감동은 선수들의
우수한 성적만이 아닙니다.
관중석에서 하나가 되어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쳤던 응원단,
대회가 무사히 치러지도록 경기장 뒤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낸 경기가 끝난 뒤
환한 미소를,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선수의
모습은 경기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대한체육회TV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보기

QR 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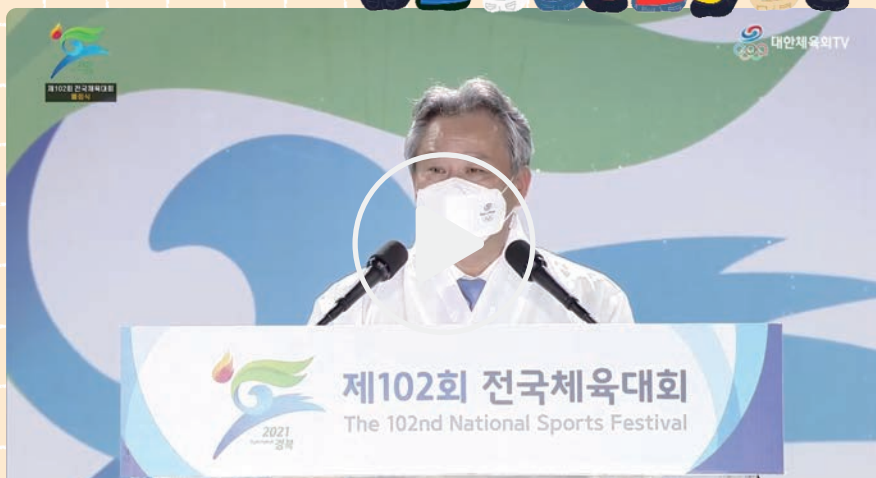


세계에 울려 퍼진 대~한~민~국!

가장 생생한 '국제대회' 현장을 만나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승부를 겨루는 국제 스포츠 대회.
우리나라 국민은 한마음이 되어 우리 선수들의 투혼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와 싸우며 최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대한체육회TV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대회 현장에서
함께했던 국민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치며,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생의 최고의 승부를
펼치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던 시간. '우리'라는 이름의 감동은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던 우리나라 펜싱. 경기 때마다 울려 퍼지던 응원소리는 아직도
가슴을 고동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대표 체육 축제를 한눈에! '국내대회', 우리나라 체육의 미래를 엿보다

스포츠 강국, 우리나라의 체육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국내대회.
국가대표를 꿈꾸는 꿈나무들, 세계 제패를 꿈꾸는 엘리트 선수들의 각축전은
국제대회의 열기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경기가 무관심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TV는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물론 주요 방송매체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종목별
경기도 가장 생생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대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더불어 눈앞으로 다가온
전국소년체육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SPORTS1**



바로보기

QR 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의 축구 실력을 비교하는 기준, FIFA 랭킹

국제축구연맹(FIFA)에 가입한 국가 수는 총 211개국이다. 브라질과 이탈리아, 독일처럼 월드컵 우승컵만 네댓 번씩 들어 올린 나라가 있는가 하면, 본선 진출만으로도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는 나라도 있다. FIFA 랭킹(FIFA World Rankings)은 이처럼 천차만별인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들의 축구 실력을 비교하기 위해 1993년 8월에 도입됐다. 최초의 FIFA 랭킹 책정 방식은 무척 단순했다. FIFA가 주관하는 공식 경기에서 승리한 팀은 3점을 득점하고, 무승부일 경우 1점씩 나눠 가졌다. 패하더라도 감점이 없어 무조건 많은 경기를 치르는 팀이 유리했다. 신뢰도를 높이고자 FIF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랭킹 계산법을 개선했다. 특히 2006 독일 월드컵 직후 눈에 띄는 쇄신이 이루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 8년간의 경기 결과를 반영하던 것에서 그 절반인 4년간의 경기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 경기 중요도, 상대 랭킹,

대륙별 가중치 등 몇 가지 수치를 보태 최종 순위를 산정했다.

이러테면 유럽과 남미를 상대로 승리할 경우 최상위권 점수를, 반대로 약체인 오세아니아를 상대로 승리하면 최하위권 점수를 주었다. 경기마다 득점 배수를 다르게 적용해 친선경기 대비 월드컵 예선은 2.5배, 대륙 선수권 대회는 3배, 월드컵은 4배의 가중치를 주었다. 기간에 따라 차등도 부여했다. 4년간의 경기 성적을 12개월씩 4등분하여 12개월 이내 승리하면 가장 높은 가중치를 주고, 13~24개월, 25~36개월, 37~48개월 순으로 차등 적용했다.

새로운 FIFA 랭킹 산정 방법, 알고 있나요?

엘로 평점 시스템 (Elo Rating System)



글. 편집실

포르투갈 8위, 우루과이 13위, 가나 60위, 대한민국 29위.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H조에 속한 국가들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다.
세계 각국의 축구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FIFA 랭킹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신뢰도 떨어진다는 비판에 도입한 엘로 평점 시스템!

이처럼 개선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던 FIFA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이후 지금과 같은 계산법을 새롭게 내놔다. 미국의 물리학자 아르파드 엘로(Arpád Elo)가 창안한 엘로 평점 시스템이다. 얼핏 복잡한 수학 공식처럼 보이지만, 상대하는 팀 간의 실력 차이를 세분화해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공식에서 'Pbefore'는 지난 달 점수를, 'I'는 경기의 중요성을 뜻한다.

$$P = P_{\text{before}} + I(W - W_e)$$

FIFA가 주관하는 A매치 데이 때 열리는 경기의 'I'는 10점,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예선은 15점, 월드컵 예선은 25점, 월드컵 조별리그는 35점, 월드컵 8강까지는 50점, 8강 이후로는 60점으로 계산한다.

W는 경기 결과다. 승리 시 1점, 무승부 시 0.5점, 패배 시 0점이다.

W_e는 승리 확률을 의미한다. '1/(10^{-(dr/600)+1)}'라는 세부 공식이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다.

$$W_e = \frac{1}{10^{-\frac{dr}{600}} + 1}$$

dr은 두 팀 간 점수 차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FIFA 랭킹 점수 1,300점을 보유한 A팀과 1,500점의 B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겨뤘는데 점수가 낮은 A팀이 승리했다고 가정해보자. A팀과 B팀 간 dr은 200점이다. 이 경우 A팀은 1300+25*(1-(1/(10^{exp(-(1300-1500)/6000)+1))))라는 공식에 따라 17점을 얻는다. 반대로 B팀은 17점이 깎인다. 해당 점수는 다음 달 FIFA 랭킹에 바로 반영된다. **SPORTS**}

TIP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민국 FIFA 랭킹!
현재는 29위, 최저는 69위, 최고는 17위

우리나라는 2022년 4월 기준 전체 29위를 달리고 있다. 역대 최악 랭킹은 2015년 기록한 69위였다. 최고 순위는 새 계산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1998년에 기록한 17위다. 4강 진출 신화를 썼던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22위를 차지하며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1위를 달성했다.

올해 말 개최 예정인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어떻게 될까? 지난 4월 열린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우리나라는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H조에 편성됐다. 이른바 '죽음의 조'는 피했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벤투 감독의 조국이자 세계적인 스타들이 다수 포진한 포르투갈은 FIFA 랭킹 8위, 우루과이 역시 13위의 축구 강국이다. 60위인 가나만 한국보다 낮은 순위다.



고즈넉한 ‘낭만 산책길’을 걷다

글: 편집실

5월의 어느 멋진 봄날, 차가운 화색 빛 도시를
벗어나 마냥 가벼운 마음으로
훌쩍 떠나기 좋은 산책길을 소개한다.

소백산 바람이 마중하는 선비의 고장을 거닐다

경상북도 영주시 소수서원길

선비의 고장으로 유명한 영주는 예스러움을 고스란히 품은 고장이다. 그런 영주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소수서원. 시원한 솔바람을 맞으며, 국내 최초의 사액서원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소수서원 산책로를 걷다 보면 마음이 절로 평온해진다. 소수서원에는 안향 선생의 위패를 모신 문성공묘와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강학당은 사면에 툇마루를 두르고, 배흘림 양식으로 기둥을 세웠다. 문을 열어 들어올리면 삼면이 트여 안팎의 경계가 사라지는데, 자연 풍경을 건축을 구성하는 일부로 수용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서원 뒤편에 위치한 탁청지라는 연못은 유생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곳으로, 연꽃이 필 무렵이면 화려한 경관을 뽐낸다. 소수서원 산책은 서원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백운교나 죽계교를 건너면 소수박물관, 선비촌으로 이어진다.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문의 소수서원관리사무소 054-634-3310 | 선비촌 054-638-5830



왕이 거닌 소나무숲, 100년 만에 조우하다

강원도 강릉시 대관령 소나무숲

강릉은 소나무숲이 지천이다. 발길에 채고, 눈길에 밟히는 것이 소나무다. 때문에 강릉은 언제 찾아도 푸르름을 선사한다. 특히 대관령 소나무숲은 100년 금강송이 아늑하고 포근하게 감싸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준다. 대관령 소나무숲은 축구장(7140m)의 560배가 넘는 400ha 규모를 자랑하는 울창한 숲이다.

1922년부터 1928년까지 소나무 종자를 산에 직접 뿌리는 '직파조림' 방식으로 나무를 심어 100년 가까이 관리하다 2018년 12월 일반에 개방했다. 맑은 솔향기가 인상적인 이곳에는 20m가 넘는 짙 짙 뽕은 소나무들이 가득하다. 이 숲에는 '치유데크로드', '숲속쉼터', '솔향기터', '물소리숲길' 등 다양한 코스가 마련됐다.

소나무 사이로 난, 지그재그가 반복되는 가파른 길을 오르자면 숨이 차오른다. 하지만 잠시 멈출 때마다 시원한 솔바람이 힘을 내라고 다독거린다. 그 위안에 다시 힘차게 걷다 보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일상의 길은 지워지고, 숲을 찾은 방문객만을 위한 세상이 열린다.

위치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문의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23



2022학년도 5월 SPORTS1 모의고사 문제지

도전! 나도 Sporter

스포츠와 일반상식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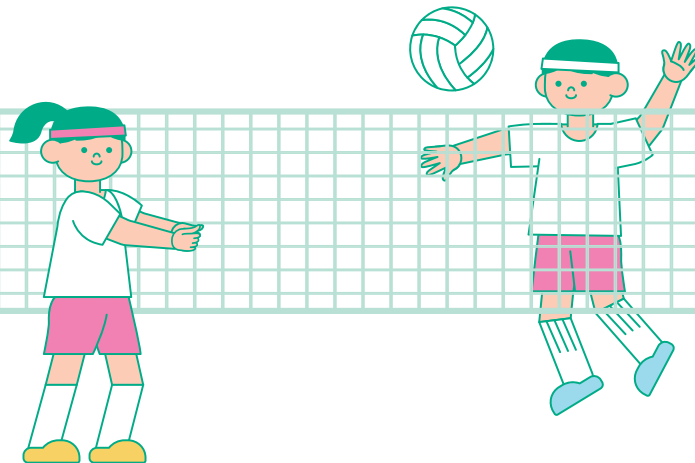
<스포츠원> 5월호는 잘 읽었나요?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KSOC 모의고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독자분의 이해를 돕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정답은 <스포츠원> 5월호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오는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우리나라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입니다.
 초·중학교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종합경기대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 | |
|-------------|------------|
| ① 전국청소년체육대회 | ② 전국소년체육대회 |
| ③ 전국스포츠소년대회 | ④ 체육꿈나무대회 |

2 이 종목이 처음 시작된 곳은 1895년 미국입니다. 6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공을 넘겨 공이 바닥에 닿으면 득점하는 이 종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 | |
|------|-------|
| ① 배구 | ② 야구 |
| ③ 농구 | ④ 테니스 |



2022학년도 5월 SPORTS1 모의고사 문제지

3 세계 각국의 축구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새로운 FIFA 산정 방법은 무엇일까요?

- ① 레드 평점 시스템 ② FIFA 순위 프로그램
③ 엘로 평점 시스템 ④ FIFA 순위 공식

4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재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새 정부는 국정 세부과제 중 60번째 과제로 ‘000 00 000,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내세웠는데요.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 ① 우리의 행복 스포츠 ② 스포츠 강국 만들기
 ③ 스포츠 나라 만들기 ④ 모두를 위한 스포츠

문제 해결 TIP

1번 힌트

식빵언니를 아시나요?

유튜브 채널 '식빵언니 김연경'으로 133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유튜브버가 된 김연경 하며 떠오르는 종말!

4번 힌트

Sports for All

나와 너,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스포츠 세상!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정답 제출하기

OR코드 스캔 후 퀴즈 정답을 제출해주세요.

퀴즈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6월 중으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 5월호 정답 제출 마감일: 2022년 6월 7일)

4월호 정답자

신*식 (5933), 최*혁 (5912), 박*기 (0070), 조*진 (4012), 김*영 (4605)
김*희 (8822), 김*길 (0905), 심*주 (6073), 김*희 (4153), 이*호 (6650)

축하합니다!

'제60회 2022년 스포츠주간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치 넘치는 5행시, 수기로 만나는 생활체육의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이벤트 하나!

함께 운동하고, 간식 먹Go!

체육활동 수기 당첨자는
김*주, 신*관, 전*옥, 강*규, 김*님, 이*평, 김*현 님입니다.
개별 연락을 드린 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김*주 님

2018년도 말에 사고로 다리 수술 전에 즐겼던
테니스를 지난주 다시 시작했습니다.
레슨 등록하고 기다리는 일주일의 무척 설렘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니 이제 시작한 걸 후회할 정도로
재밌습니다. 욕심욕심 느껴지는 오른팔의
통증이 기분 좋네요.^^

전*옥 님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와 함께
공놀이도 하고 자전거도 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됐으니, 보다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운동해볼까 합니다.

강*규 님

따뜻한 봄날의 오후 아이들과 인근 체육공원에
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 안에서만 보냈던 게
미안했는데, 이렇게 야외에 나와
놀아주니 잘 데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돌!

5행시 짓고, 선물 받Go!

5행시 당첨자는

이*슬, 김*중, 김*일, 이*평, 김*학, 조*은 님입니다.

개별 연락을 드린 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김*중 님

- 스** 며들 듯 천천히 느껴지는 건강 적신호
포 기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초 르르 흐르는 땀방울마다
주 녹들었던 이전 모습은 사라지고
간 단히 당당해질 수 있어요.

김*일 님

- 스** 트레스가 심하게 쌓여가는 요즘
포 즈 한 번 취해보세요.
초 링츠링 부드럽고 여유로운
주 말을 보내고 싶다면
간 간히 3770 운동으로 즐거운 주말을 맞아보세요.

이*평 님

- 스** 스로 내게 맞는 운동을 해야
포 즈가 멋지게 잘 나와요.
초 (처)음부터 멋지고 예쁜 포즈는 어렵죠.^^
주 기적으로 스포츠7330을 실천해 보세요.
간 지나는 내 몸, 내 포즈를 만들 수 있어요!

이*한 님

- 스** 포츠가 프로 선수나 전문 체육인만의 영역이라는 생각 때문에
포 기하지 마시고, 일상 속 체육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보세요.
초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주 체적으로, 나에게 맞는 체육 활동을 찾아 보는 60주년 스포츠주간
간 절히 원했던 일상으로의 복귀, 스포츠로 함께 힘차게 열어 봐요!



SPORTS1 NEWS

대한체육회

스포츠 ODA 사업 통해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 지원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ODA의 일환인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 및 '스포츠 동반자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했다. 라오스 야구는 2015년부터 스포츠 ODA 사업을 지원 받았으며, 이를 발판으로 2017년 라오스야구연맹을 설립하고 국가대표팀을 창단했다.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이하 초청 합동훈련)' 사업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5월 5일부터 14일까지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 선수단 22명(임원 3명, 선수 19명)을 초청해 진행됐다. 강릉고등학교 등 강원지역 선수단과의 초청 합동훈련을 통해 선진 기술을 전수하고, 친선경기를 통해 야구 기술 및 국제대회 참가 역량을 기를 수 기회를 제공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라오스 야구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는데, 민상기조민규 감독이 라오스 야구 지도자로 파견되어 한국의 선진 야구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합동훈련 기간 중 항저우아시아게임 참가 시 착용할 유니폼도 지원했다.

초청 합동훈련에 참여한 조 선수(23번)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라오스에서 야구단을 만들어 한국에서 배운 야구를 가르치고 싶다"라고 전했다. 2019년 첫 초청 합동훈련 후 4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방문한 비 선수(39번)는 "한국 선수들이 경기 도중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팀 분위기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민상기 감독은 "라오스에 야구를 널리 알려서 많은 국민이 야구를 즐기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스포츠 ODA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각 사업 간 연계를 통해 개도국 스포츠 인프라 구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원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스포츠의과학 훈련지원 마련 토론회 개최



대한체육회가 5월 11일, 태릉선수촌 챔피언사우스에서 국가대표 스포츠의과학 훈련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가대표 스포츠의과학 지원체계에 대한 현황과 한계를 논의하고, 다양한 현장 체육인의 목소리를 들어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우리나라는 2020 도쿄올림픽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등에서 예전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국제스포츠계 경쟁이 치열해진 원인도 있지만 스포츠의과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함께 선수 양성과 국가대표 훈련지원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국가대표 훈련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를 대표해 임영진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이정민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 선수위원장이, 비장애인 스포츠를 대표해서 김동현 역도 국가대표 코치, 차민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등이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서 주성택 한국체육정책학회 부회장, 박동호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이재원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가 체육학계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에 대해 논하고, 정태경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이 정부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뒤 현장에 참석한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 MAY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후보선수 국외 전지훈련 재개



대한체육회가 엘리트 스포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26개 종목 국가대표 후보선수(약 400명)를 대상으로 국제대회 파견 및 국외 전지훈련을 재개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대표 후보선수 국제대회 파견 및 국외 전지훈련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지만, 다시 대폭 확대해 재개한 것이다. 지난 4월 '2022 여자주니어월드컵' 참가를 위해 남아공을 찾은 하키 선수단을 시작으로 탁구, 역도, 체조 등 각 종목별로 순차적인 국외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통해 선수들은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선진기술을 습득, 국가대표 결선 시 언제든 총원될 수 있는 경기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꿈나무선수, 청소년선수, 후보선수, 국가대표선수 4단계로 연계된 전문선수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29개 종목의 1,310명의 국가대표 후보선수를 선발해 육성하고 있다. 이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확률은 전년기준 85.1%다.

OCA·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와 전통 스포츠 발전 논의

대한체육회는 5월 3일, 롯데호텔 서울(소공동)에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위원장 및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자문위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만찬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흥 IOC위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OCA 자문위원들은 이시종 도지사와 만찬을 갖고 무예를 통한 스포츠 레거시 확산, 전통 문화의 발굴과 보전 등 전통 무예와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기흥 회장은 “스포츠는 세대와 지역, 국가를 뛰어넘는 통합과 다양

성,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제시하며,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단절과 소외 등의 문제는 스포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하며, “무예 스포츠 역시 인간성 고양, 도덕의 가치 전달 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OCA 자문위원들은 다음 날인 4일, 강원도로 이동해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현안을 보고 받고 DMZ를 방문했다.

청렴 문화 위한 사내 브레인스토밍 협의체 ‘청렴톡톡’ 운영



대한체육회는 5월 3일, 최근 정제된 기관 청렴도를 견인하고자 ‘청렴톡톡’의 첫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청렴톡톡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권고과제였던 조직문화와 관련한 갑질행위, 예산집행과 관련한 예산의 부당집행, 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다음 달부터는 월별 1회 온·오프라인 참여가 가능한 회의를 열고, 주제를 사전에 안내해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에 제안된 직원들의 의견과 2021년 청렴도 평가 종합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2022년도 청렴반부패 추진계획의 다양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SPORTS1 NEWS

대한체육회

국제대회 옵저버프로그램 워크숍 마무리



대한체육회가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제1차 국제대회 옵저버프로그램'과 체육단체-지방자치단체 매칭 워크숍을 진행했다. 국제대회 옵저버프로그램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현장에 체육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옵저버로 참가해 국제대회 준비·운영 과정에 대한 강의 청취와 현장 견학 등을 통해 대회 준비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배양하는 자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기구에서는 레거시 창출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도 국제대회 유치와 개최역량 강화 사업 중 하나로 2021년부터 새롭게 도입했다. 올해 첫 프로그램은 2022 고양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기간에 진행됐다.

대회 주관기관인 고양시는 대회준바운영 과정에 대한 강연을 담당했으며, 대회 주최기관인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연맹(IF)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대회'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국제대회 주최 측이 알아야 하는 도핑업무'에 대한 강의를 해 참가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최해 체육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시도체육회

서울특별시체육회
스포츠 주간 맞아 3.3km 트레킹 진행

서울특별시체육회가 2022년 '스포츠 주간'을 맞아 4월 29일 사무처 전 직원과 함께하는 북한산 트레킹 행사를 진행했다. '스포츠로, 일상으로'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70여 명의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해 3.3km 트레킹을 완료했다. 서울시체육회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일상회복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사업들을 힘차게 시작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수원대 경기력 향상 '맞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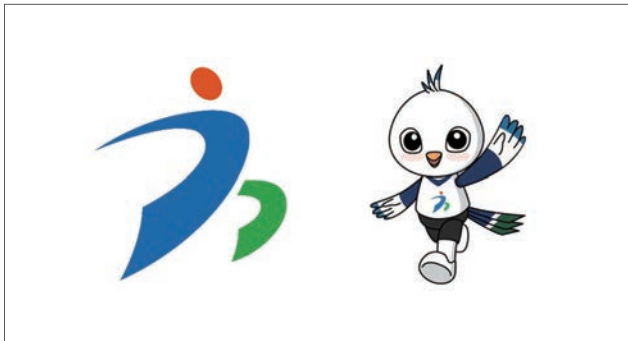
경기도체육회 산하 경기스포츠과학센터와 수원대학교 건강과학대학이

2022 MAY

시도체육회

5월 1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은 수원대 송승민 학장 및 이성철 교수, 정연성 센터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소개, 협약서 서명 및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상호 지원, 전공 대학(원)생의 현장실습 및 재능기부 활동 기회 제공, 경기력 향상을 상호 자문 및 스포츠과학 영역 프로그램 교류, 소속 엘리트 운동선수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공유 등이다.

충청북도체육회 새 'CI·캐릭터' 선보여



충청북도체육회가 신규 CI와 캐릭터를 공개했다. 법정법인 출범에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체육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아 개발되었다. CI는 충북의 'ㅈ'과 체육의 'ㅊ'을 모티브로 선수들이 날아오르는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해 제작됐으며,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충북 체육을 표현했다. 캐릭터는 충청북도의 상징인 '까치'를 활용했는데, 하얀 까치의 줄임말인 '하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흰까치는 천년에 한 번 나타난다는 길조로 충북 체육의 밝은 미래를 뜻하며, 공정한 행정을 밑거름으로 경쟁을 통해 승리의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며, 충북 체육이 더욱 높이 도약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충청남도체육회 이사회 및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



충청남도체육회가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사회 및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28일 이사회에서는 신임 부회장 위촉장 수여, 임원 추가 선임,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본예산 대비 13%(2,586백만 원) 증액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9일 간담회에서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선전 다짐과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서명 운동,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에 대해 설명했다.

SPORTS1 NEWS

시도체육회

대구광역시체육회
태권도 주식회사와 학생선수 후원 물품 전달식

대구광역시체육회가 4월 13일 태권도 주식회사와 엘리트 초·중등학교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후원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대구광역시체육회 신재득 사무처장을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와 태권도 주식회사 김대환 대표가 참석했다. 태권도 주식회사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대구시 대표 선수들의 체력 보강을 위해 운동선수들과 어린이들의 맞춤 영양제인 '김사부의 럭키찬스' 800박스(8,000만 원 상당)를 대구광역시체육회에 전달하고, 선수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광주광역시체육회
양궁월드컵대회 스포츠과학 현장지원 나서

광주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가 5월 17일부터 6일간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 '광주 2022 양궁월드컵대회'에서 스포츠과학 현장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제양궁장과 결승전이 열리는 광주여대에 현장지원 부스를 설치하고 최첨단 장비와 박사급 전문인력들을 파견한다. 현장지원 부스는 Recovery zone, Performance zone, Stretching zone 3개 구역으로 구성하고 참가선수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원 장비에 대한 영문 설명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스포츠과학연구소는 기존 스포츠과학센터와 2020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컨디셔닝 센터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상 예방 및 교육과 부상 후 회복훈련, 개인별 종목별 전문훈련, 경기장 방문 현장 밀착지원으로 지역 선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전라북도체육회
원로·역대 사무처장 초청 간담회

전라북도체육회가 4월 27일 원로(고문·자문) 간담회와 역대 사무처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전라북도 체육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로들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체육 영재 발굴 프로젝트 등 전라북도체육회가 추진한 각종 현안사업 및 올해 추진할 굵직한 사업들을 청취했다. 이어 원로들은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이 선순환하는 선진체육시스템을 구축해 전라북도 체육의 위상을 드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원로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역대 사무처장 간담회도 열렸다. 전라북도 체육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했던 역대 사무처장들도 체육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대진 전북대 명예교수(전 사무처장)는 자신이 만든 유아 체육 자료(누리과정 신체운동 교수자료) 400세트를 기부했다. 해당 자료는 '생각하며 운동하고 운동하며 생각하자'는 주제로 영상 자료(DVD)와 교재, 교사용 지도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라

2022 MAY

시도체육회

북도체육회는 원로사무처장의 의견을 새겨 건강한 체육, 행복한 도민, 빛나는 전복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취약계층 생활체육 단체 추가 모집 &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제주도체육회가 5월 6일까지 제주도 내 취약계층에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2022 취약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 단체를 추가 모집했다. 해당 사업은 도내 유소년, 여성, 노인,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관심 종목을 중점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취약계층 단체 4개소를 추가로 모집하고 선정된 단체에는 현장 지도자를 파견한다. 더불어 민간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체육시설 업종 이용 시 NH농협카드나 제주은행 카드로 결제하면 이용료의 10%(월 2만원 내)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5월 1일부터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이용 시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회원종목단체

대한산악연맹 창립 60주년 기념 60개 봉우리 동시 등정



대한산악연맹이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전국 17개 시도 60개 봉우리를 동시 등정하는 기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등정은 대한산악연맹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로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 한라산 백록담에서 최북단 설악산 대청봉 그리고 최동단 울릉도 성인봉과 독도망양대 등 전국 17개 시도연맹과 산하단체가 선정한 60개 봉우리에서 대한산악연맹의 60주년 도전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립 60주년 기념일인 4월 23일에는 17개 시도 60개 봉우리 동시 등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산악연맹은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 한라산 백록담에서 최북단 설악산 대청봉, 최동단 울릉도 성인봉과 독도 망양대 등 전국 17개 시도연맹과 산하단체가 선정한 60개 봉우리를 동시 등정했다. 대한산악연맹의 60주년 도전 역사를 재조명하고 산악운동을 다시 부흥하고자 계획한 행사”라고 밝혔다.

SPORTS1 NEWS

회원종목단체

대한민국배구협회 배구 경기 데이터 사업 협약 체결



대한민국배구협회는 5월 4일, 한국중고배구연맹과 와이에스티와 함께 대한민국 배구 발전을 위한 경기 데이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배구협회와 한국중고배구연맹의 16세~19세 이하부 전 경기를 AI 자동 스포츠 중계를 통한 배구 경기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출된 데이터는 대한민국배구협회의 공식 데이터로 인증된다.

한국중고배구연맹은 2020년 10월부터 와이에스티와 협업해 AI 자동 스포츠 중계시스템을 도입했고, 배구협회는 2021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부터 도입했다. 와이에스티는 AI로 촬영된 경기 영상에서 배구 경기의 주요 데이터를 산출해 배구 경기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 학교 배구 관계자 및 선수들은 16세~19세 이하부 공식 배구 경기의 팀별·개인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한국중고배구연맹 및 와이에스티와 함께 배구 경기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대학 진학 및 선수 스카우팅 정보 전달을 위한 자료 활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대한핸드볼협회 회원종목단체 최초 ESG추진단 발족

대한핸드볼협회가 4월 12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추진단을 출범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중에서는 최초다. ESG추진단은 산업계의 ESG 경영이 체육계에도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도입 필요성을 공감해 지난 2월 대한핸드볼협회 이사회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운영을

공식화했다. 대한핸드볼협회 길병송 부회장을 단장으로 추대했고, 전국 16개 시도핸드볼협회 전무이사과 5개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성격으로 출범했다.

ESG 추진단은 첫 과업으로 전체 핸드볼 선수·지도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폭력 방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폭력 방지 교육은 핸드볼 아카데미 주관으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폭력·성폭력·도박·승부조작 예방을 목적으로 전국의 초등·중고등·대학·실업선수·지도자·학부모 2,5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대상자의 91%인 총 2,363명이 교육을 완료했으며, 선수와 지도자는 개인별 과정이수와 함께 서약서도 제출하며 폭력 방지 실천을 다짐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여학생야구·소프트볼교실 개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오는 5월 27일까지 여학생 야구·소프트볼교실에 참여할 학교와 스포츠클럽을 모집한 뒤 '여학생야구·소프트볼교실'을 연다. 여학생야구·소프트볼교실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사업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올해 45개 학교와 스포츠클럽에서 각 16회 수업을 할 예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를 파견하고, 야구·소프트볼 장비를 지원한다. 여학생야구·소프트볼교실에 참가한 학교와 클럽은 전국소프트볼슬로우피치대회, 지역교류전, 소프트볼 국가대표 클리닉에 참가할 수 있다.



2022. 5. 16. ~ 8. 16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1398번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보** **달려 봄**

시원한 바람, 흙과 나무, 자연의 향기를 느끼며 달려보세요
더 건강하고 꾸준히 지속가능한 힘 **스포츠7330**



※ 이 제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